

하이젠모터(주) 김재학 대표이사

대담 : 강태준 편집이사(인하대학교 교수)
정리 : 양회관 사무국장

김재학

Q 하이젠모터(주)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하이젠모터주식회사(대표 김재학)는 1963년 금성사(현 LG전자) 사업부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모터 제작을 시작한 이래 지난 57년간 산업용 모터 사업에 주력해 온 국내의 대표적인 모터 전문 기업입니다. 처음 금성사를 거쳐, LG전자, LG산전, LG·OTIS 엘리베이터로 상호가 변경되어 오다 2008년 1월 1일 지금의 하이젠모터라는 이름의 독립법인으로 새로이 출발하면서 모터 제어 및 모터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용 모터와 지능형 모터 시장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Q 귀사의 주요 생산 제품과 그 특징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주요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동력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전압 및 고전압 모터, 동력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서보모터, 서보드라이브, 엔코더 및 모션 제어기와 협동로봇용 구동 관절 모듈 등 입니다. 50여 년간 축적한 전동기, 제어기 부문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8년 부품 전문 기업에서 로봇 제조 전문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자 로봇사업부를 신설, 다관절 로봇을 비롯해 델타 로봇 관절 모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Q 대규모의 연구 개발 투자는 물론, 로봇사업부를 신설해 델타 로봇 관절 모듈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사업부와 로봇SI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더불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우리 회사가 아무래도 아직은 로봇 비중보다는 산업용 모터 비중이 더 크





다 보니 산업용 부품 회사로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업용 모터나 로봇용 모터, 전기 자동차 모터, 서보모터, 서보드라이브나 인버터는 모두 같은 기술을 다르게 표현한 부품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R&D에 약 30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받았지만 적어도 반 이상은 회사 자금입니다. 내실 있게 만드느라 그동안 바빴습니다. 제품 설계부터 양산까지 경쟁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생산 체제뿐 아니라 적기에 신제품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R&D 체제도 갖췄습니다. 이제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어 놓았는데 시장보다 다소 앞서서 개발한 부품이지만 다행히 최근에 관심을 가진 고객과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 부품을 개발하고 나서 몇 년간 로봇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부품을 써봐 달라고 했습니다만 국산 부품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일본과의 무역 마찰 이후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강조한 이후에 로봇 업체에서 일본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한 점은 다행입니다. 현대로보틱스처럼 오랫동안 로봇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브랜드 파워가 있어 프리미엄 마켓에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고, 가격이나 품질로 보면 우리 회사는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로우엔드(low-end) 마켓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맞춤형 로봇이 얼마든지 가능할 만큼 유연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 서보모터, 서보드라이버는 자체 기술로 개발해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라인에 직접 적용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작년부터는 로봇사업부 내에 로봇SI(System Integration)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NC 가공 라인 전체의 로봇 자동화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기술로 섬유 분야 포장 라인에 로봇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자동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열악한 근무 환경인 뿌리 산업 및 식음료 분야 등으로 로봇 SI 사업을 확장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후배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제가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인데 몇 년 전에 공학한림원이 중국공정원의 초청으로 중국산업계 특히, 심천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천을 가서 상업용 드론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에서 1위인 DJI를 방문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 홍보룸에 갔더니 5년 전에 처음 생산한 드론 1호기를 전시해 놓았는데 5년 전에 제가 만들었으면 솔직히 그보다 훨씬 잘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5년 전 기준으로 DJI가 만든 드론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인프라를 사업에 살리지 못하였으니 저의 사업적 감각이 부족한 것이라고 무척 반성했습니다. DJI는 그 드론을 만들고 나서 몇 대를 더 만들어 실적을 쌓더니 상장해 자금이 들어오니

단기간에 인력들을 뽑아 시장에서 환영받을 제품을 개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도 상장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사람도 뽑고, 설비 투자도 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찬스를 못 잡은 것 같아 후회됩니다. 기술만 가졌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시장을 뚫어야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는 많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특수 환경과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척해야 할 몫이 훨씬 큰 한국의 기업 환경 차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공하는 기업 환경이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을 순식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외출 전 꼭 챙겨야 할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진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 전반에서 더욱 강력한 '언택트(untact) 세상'으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물류량 급증과 물류 센터 집단 감염 등으로 물류 효율화와 비대면화가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조 물류 분야에 로봇에 의한 완전 무인화 진행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대한 관심으로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하이젠모터의 신사업을 핵심 로봇 부품 사업에서 로봇 완제품, 그리고 로봇 서비스를 위한 SI 사업으로 두고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계저널 독자분들도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도전하길 바랍니다.